

임실치즈테마파크 야간에도 빛나 옷칠 목공예관 건립 사업 탄력

장미원에 환상적인 야간경관 조성… 내년 5월엔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 개최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던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에 환상적인 야간경관이 조성되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사업비 2억5천 만원을 투입해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 약 3,800㎡ 면적에 야간경관 정원 조성을 추진하여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5100만원을 지원받고,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지문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라인등과 스타킹등, 장미식재 조명 등 아름답고 은은한 분위기의 조명으로 야간 산책로에 편안함을 더했다.

LED전식과 수목투광등, RGB 조명 등 특색있는 조명을 운영 중인 기존 치즈테마파크 단지의 야간경관과 연계하여 편안하면서 이색적인 야간 관광지를 조성했다.

특히, 군은 조명 설치로 인한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야간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 및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으며, 운영 후 보안 사항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던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에 환상적인 야간경관이 조성되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2단계에 걸쳐 154억원을 투입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을 조성했다. 총 6,000여평에 200여종 22,000주의 형형색색 장미가 식재되어 있고, 군은 내년 봄에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봄에는 어린이날 축제가 열리고, 여

름에는 아쿠아페스티벌, 가을에는 천계에 걸쳐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치즈축제, 겨울에는 산타축제 등이 열리는 축제 도시 임실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장미꽃이 피어나는 5월을 맞아 장미 당굴 속 치즈테마파크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경관이 조성된 만큼 많이들 방문하시어 멋진 사진도 찍고, 봄날의 아름다운 밤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며 “내년 이맘때쯤이면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열어 명실공히 사계절 축제의 도시 임실, 그리고 축제장인 치즈테마파크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 이 · 취임식

최일천 제18대 지회장 취임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는 지난 9일 김용식 제17대 지회장의 이임식과 최일천 제18대 지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순

창군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읍·면 분회장 등 노인회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용식 전 회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창군지회를 이끌며 자체 회비 폐지 등 어르신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그 공로로 순

창군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어 취임한 최일천 신임 회장은 순창군의원, 순창군 노인대학장, 유등면 분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회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축사에서 “김용식 회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일천 회장과 함께 어르신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당도 높고 향 좋은 ‘남원 시설복숭아’ 첫 출하

남원에서 재배 수확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시설복숭아가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바쁜 손길로 수확하고 있다.

남원 송동면에서 출하된 시설복숭아는 지난 1월 초순부터 가운을 시작하여 노지보다 빠른 2월에 꽃이 만개하며 3월 하순에 적과 후 5월 초에 수확하는데 노지와 비교하여 약 40일 정도 빨리 수확기를 앞당겨 생산하게 되었

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에 따르면 남원 시설하우스 복숭아는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30여 농가가 10ha에 이르는 면적에 재배하고 노지 재배에 비해 3~4배 이상의 높은 조수익을 올리고 있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자는 “남원시에서 생산된 복숭아가 전국 최



고의 명품 복숭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배 환경개선 및 우량 품종 도입 등에 지도사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문체부 공립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남원 현대 옷칠 목공예관 건립 사업이 지난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옷칠 목공예관은 남원시에서 조성 중인 합과우 아트밸리 내에 조성되는 연면적 2,759㎡ 규모의 전시공간, 수장 공간, 교육공간 등을 갖춘 문화시설로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의 옷칠 목공예 문화는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대자연을 기반으로 이어온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원은 오늘날까지 한국 옷칠 목공예의 전통성이 계승되고 지역문화로 이어진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특히 1997년부터 남원에서 개최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은 올해 28회로,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성과 높은 혼적(국무총리상)을 갖춘 옷칠 목공예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남원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모전의 성과를 통해 남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 옷칠 목공예 문화의 예술성과 변화를 조명하고 현대적인 예술 트렌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현대 옷칠 목공예관은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K-공예 문화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실군,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 과태료 부과

최근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임실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최근 관내에서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3건을 적발하고, 관련 원인자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은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5일~5월 15일) 동안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김경필 강사 초청 ‘Play남원 아카데미’ 강연

남원시는 오는 20일 저녁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강사를 초청하여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과 맞춤형 자산관리 노하우를 통해 돈을 관리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Play남원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잘 쓰고 잘 모으는 부자 되는 공식”이라는 주제로 단순한 재테크 이론이 아닌 개인의 월급 수준과 소비 습관에 맞춘 실질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남들보다 한발 앞서 가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전수한다.

김경필 강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방송에서 강조했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테크 팁에 대해 남원시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Play남원 아카데미는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Play남원 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매월 자세한 강연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당일 강연은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로도 실시간 송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토종 어류 치어 8만여 마리 방류

순창군이 지역 하천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토종 어류 치어 방류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일 복흥면 추령천과 유등면 섬진강 일원에서 동자가 치어 8만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방류된 치어는 모두 전장 4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어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 종자다.

군은 매년 동자가, 소가리, 붕어, 메기 등 다양한 토종 어종을 방류하며 하천 생태계의 균형 회복과 수산자원 관리에 힘쓰고 있다.

현장을 찾은 한 주민은 “행정에서 꾸준히 방류 사업을 해줘 감사하다”며 “어족 자원 증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치어들이 잘 성장해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지속 추진해 어족자원 보전과 수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덕치면,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 물품 전달

임실군 덕치면이 지난 7일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를 방문하여 ‘임실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사업은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권을 받은 박모 씨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이렇게 상품권까지 주니 기분이 좋다”며 “상품권으로 어머니와 맛있는 음식을 해 먹어 아꼈다”고 전했다.

이형준 덕치면장은 “전달해 드린 효도 물품이 노부모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면내 교량의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